

정직에 대한 개념 인식과 발달적 경향 연구*

장 희 선¹⁾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본 연구는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이 '정직'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연령과 성에 따른 발달적 지형도를 그려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인식하는 정직의 개념을 179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사고기록방법을 통해 정직진술문을 수집하고, 개념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는 총 1,091명을 연구대상으로 연령과 성별 정직 개념 인식의 발달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정직 인식에 대한 개념도 분석결과, 첫째, 정직은 '진실성, 준법성, 충실성, 정의성, 원칙주의'의 5개 군집으로 범주화하여 인식되고 있었다. 둘째, 정직개념의 하위 진술문들에 대해 발달적 중요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 집단에서 '진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진실성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직의 개념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원칙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준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셋째, 성별차이에 있어서 남성은 '성실, 책임, 신뢰'와 같은 진술문이 포함된 '충실성'을, 여성은 '거짓말 하지 않기, 진실만 말하기, 속이지 않기'의 진술문이 포함된 '진실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직'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증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 정직, 개념도 분석, 인식, 발달적 차이, 성별 차이

* 본 연구는 2012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연구 1부분을 보완 정리한 것임.

1)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E-mail : sun0605@snu.ac.kr)

I. 서론

정직은 범문화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기본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에서 인성이 뒷받침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덕목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문용린, 최인수, 박윤정, 이현주, 2010), 미국 인성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과정에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전 학년에 걸쳐 정직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박효정, 정광희, 2001). 여러 선행연구들도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정직임을 밝히고 있다(홍용희, 2004; Keltner, 2009¹⁾).

하지만 정직이란 용어가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논의하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정직을 절대적 도덕규범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규범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Kohlberg, 1958; Piaget, 1932, 1965). 이에 반해 상황의존적인 입장에서는 정직을 개인의 지속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으로 보았다(Grinder, 1964). 정직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개인 간, 집단과 집단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Knapp & Comadena, 1979; 송명자, 1995에서 재인용).

사전적 의미에서의 정직(正直, honesty)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국립국어원, 2012)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가 정직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함의를 모두 보여줄 수는 없다. ‘정직(正直)’이란 말을 최초로 언급한 서경(書經)과 시경(詩經)에서는 ‘이치에 어긋남이 없고, 왜곡됨이 없으며, 임금의 도리는 곧을 것이다’라고 하여 임금이 갖추어야 할 첫째 덕목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맹자의 인의도덕론(仁義道德論)에서는 Piaget나 Kohlberg와 같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등의 세 가지 마음을 정직성의 기초로 보았으며, ‘정직’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드러내는 양심은 ‘생각지 않아도 아는 능력(良知)과 배우지 않아도 가능한 것(良能)’으로 다루어졌다. 정범모(2004)는 정직성을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는 것, 즉 사실대로 말하고 당위대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직함을 도덕 그 자체로 보고 도덕성을 이루는 근간이라고 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한 정직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범주화되고 있다. 대체로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기’, ‘속이지 않기’, ‘훔치지 않기’ 등 그것과 반대 속성인 고의로 한 거짓행동과 비교된다(Burton, 1976). 또한 정직의 심성요인으로 감수성, 규범성, 의연성, 개방성에 대한 논의(정범모, 2002)가 있어 왔다. 덧붙여 정직을 개인의 원만한 성격 형성을 위한 근면, 성실, 겸손, 진정성, 일관성과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요구되는 신의, 진솔함을 길러줄 수

1) Keltner D, 2009, *Born to be good*, Boston, Norton,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300가지의 특징 중 ‘정직’을 가장 많이 꼽는 등 정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있으며 질서의식, 준법, 정의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이철주, 2014). 정직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사실대로 표현하는 ‘대화에서의 정직’과 흠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만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고 규칙에 따라 행위하는 ‘행위에서의 정직’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정창우, 손경원, 김남준, 신호재, 한혜민, 2013).

경험적인 연구방법을 통한 ‘정직’ 개념의 하위범주는 ‘정의로운 귀감자(just exemplar)’의 연구에서 다차원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정직(honest)’ 범주 속에 ‘충실한(faith)’, ‘신뢰할 수 있는(trustworthy)’, ‘성실한(loyal)’, ‘거짓말 하지 않는(truthful)’, ‘거짓 없는(sincere)’, ‘진실의(true)’들이 하위 구성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Walker & Henning, 2004). 이 연구에서 ‘원칙주의(principled)’를 ‘정직한(honest)’의 범주와 구분하면서 ‘합법적인(lawful)’, ‘덕 있는(virtuous)’, ‘바른(righteous)’, ‘훌륭한(honorable)’, ‘청렴한(has integrity)’, ‘윤리적인(ethical)’, ‘부패하지 않은(incorruptible)’등을 하위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국내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정직한 사람’에 대한 인식의 요인분석을 통해 ‘충실한(faith)’, ‘진실성(trust)’, ‘정당성(righteous)’, ‘준법성(principled)’의 4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을 밝히고 있다(장희선, 손경원, 2011). 이렇게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직의 개념은 사회적 현상으로서 일상생활의 복잡하고 다양한 하위 요인들이 관여되어 있으며,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되어 행동에 반영되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정직 하위범주의 구성이 정직의 개념으로 타당한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구성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직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예의를 갖추기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행위는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나쁘게 평가되지 않으며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단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Fu, Xu, Cameron, Heyman, & Lee, 2007). 우리나라와 호주의 아동의 정직에 대한 훈육방식의 비교문화 연구에서 호주 부모가 ‘거짓말하지 않기’를 가장 바라는 가치로 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부모는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현자, 1996). 이렇게 문화에 따라 정직에 대한 평가가 다른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인식하는 정직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지 해석학적 및 경험적 방법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적 경향에 따른 정직에 관한 연구로는 아동에서 일반인으로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개념에서 사회적 개념의 정직 개념이 발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김경희, 1999). 또한 거짓말에 국한하여 그 유형과 정당화 방식을 살핀 연구(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7)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Morgan(1937)의 부정직 행위유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거나(우남희, 이은정, 2004) 개인, 사회, 도덕 영역으로 구분한 Perkins와 Turiel(2007)의 틀을 사용하여 분석하려고 시도(문용린 등, 2007)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체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대체로 부정직 행위유형의 발달적 경향을 분석한 것으로 구체적인

로 그들이 인식하는 정직의 개념이 무엇인지 개념자체의 이해에 대한 발달적 분석을 보고하는 경험적 연구는 드물다.

그리고 남녀의 성차에 따른 정직에 대한 선행연구로 Grindler(1964)가 연령과 유혹에 대한 저항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연구에서 남자 아이들은 규칙준수의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자 아이는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규칙준수의 경향이 많아졌다는 연구가 있다. 국내에서 이선인(1993)은 초등학교 남자 아이들이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성차가 증가하여 여자 아이보다 더 부정직하게 행동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양돈규, 성옥련(1994)도 초등학교 2학년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6학년에서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보다 부정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김경희(1999)는 사회적 거짓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정직 행위를 토대로 한 선행연구는 확인할 수 있으나, 인식의 성별 차이를 토대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도덕 교육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주로 추상적인 도덕적 개념이다. 추상적인 도덕적 개념은 인식 주체에 따라서 상이하게 구체화될 수 있다. 개념의 이해 자체가 상이한 경우 적용과 반성이 공유되기 어렵다. 그리고 개념의 이해가 실제적 용법과 무관한 경우에도 유의미한 적용과 반성은 어렵다(송영민, 2009). 예를 들어, ‘사람은 정직해야하며, 이것은 정직한 행동이므로 이것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전제가 되는 정직 개념의 이해가 선행하지 않는다면, 그 판단이 유의미

하게 공유되기는 어렵다

유의미하게 공유된 도덕적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는 도덕적 개념의 실제적 의미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말의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교환되는 용법에서 드러난다(강재륜, 1996). 일상 언어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분석하는 것은 실제로 흔히 사용되는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도덕적 개념의 공유된 실제적 이해와 관련되며, 간접적으로는 도덕성의 함양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는 정직 개념 인식의 발달적인 경향과 성차를 살펴보는 것은 정직의 개념 인식이 실제적 이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험연구방법인 개념도 연구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념도 연구방법은 방향이나 방침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 집단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특정 사업의 주제 및 방향에 대한 핵심적 인식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구조적 개념화 방법이다(Trochim, 1989). 개념도 연구법은 양적·질적 연구법을 통합한 연구방법으로 최근 들어 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Daughtry & Kunkel, 1993;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Paulson, & Worth, 2002). 개념도 연구법은 통계적으로는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sional scaling)과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자들이 기초 자료 제시 및 결과물을 얻기 위한 자료조직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연구자의 관점을 최대한

배제해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현상의 영역과 구성 요소, 그리고 잠재구조 등을 밝히는데 유용하다(Paulson et al., 1999).

국내 연구에서도 기초적인 이론이 수립되지 않은 개념이나 대상을 연구하는데 개념도 방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김지영, 2007; 김홍희, 한기순, 2011; 최윤정, 김계현, 2007; 최한나, 김창대, 2008). 아울러 도덕성 분야에서는 김홍희, 한기순(2011)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의 개념도 분석, 개념도를 통한 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박진희, 손원경, 2014)가 있다. 이지혜(2012)는 도덕역량에 대해 개념도 방법을 적용하였을 뿐 정직에 대한 개념 인식 분석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concept mapping)를 통해 정직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정직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정직에 대한 인식의 개념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정직 인식의 하위 요소별로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 연령별, 성별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 정직의 개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먼저, 서울과 강원도의 사범대 대학생 122명과 대학원생 57명을 대상으로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사고기록 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한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사범계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은 교육과정에서 다른 집단보다 정직과 도덕성에 관해 강점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이해수준을 통해 정직 개념을 보다 폭넓게 개념화하여 유용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표본선택에 있어 편향을 피하기 어렵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약을 최대한 고려하여 동일 연령대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중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서울과 지방 소재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실시한 이유는 사고기록 설문에 참여한 이후, 연구자와 다시 만나 진술문 분류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19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과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179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대학생 122명(68.2%)과 대학원생 57명(31.8%)으로 구성되었고, 여학생 125명(69.8%), 남학생 54명(30.2%)이

표 1. '정직' 개념 중요도 인식 설문 참여자수

(명(%))

구분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	일반인 평균 만 39.24세(<i>SD</i> = 11.67)						계
					19~ 25세	26~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연령 분포	11세	14세	17세	19~ 25세	26~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소계	
남	109	114	101	97	17	59	32	11	40	123	544
	(20)	(21)	(19.1)	(17.8)	(13.8)	(48)	(26)	(8.9)	(3.3)	(22.6)	(100)
여	116	110	102	113	34	34	9	14	15	106	547
	(21.2)	(20.1)	(18.7)	(20.7)	(32)	(32)	(8.5)	(13.2)	(14.2)	(19.4)	(100)
계	225	224	203	210	51	93	41	25	19	229	1,091
	(20.6)	(20.5)	(18.6)	(19.2)	(22.3)	(40.6)	(17.9)	(10.9)	(8.3)	(21)	(100)

였으며, 평균 연령은 22.43세였다.

둘째, 사고기록 방법으로 추출된 진술문의 분류작업에 참여할 대상자는 사고기록 작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직접면접이나 전화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위한 협조를 구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참여자는 사범계열 대학생 24(46.63%)명과 대학원생 31(56.36%)명으로 총 55명이었다. 개념도 연구 방법에서 연구 참여자의 수는 크게 제한이 없으나, 아이디어를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참여자의 수는 최소 10명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Kane & Trochim, 2006; 최윤정, 김계현, 2007에서 재인용). 이후 도덕교육 및 교육심리전공 박사과정 이상 평정자 2명이 64개의 평정문으로 정리한 후, 사고기록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55명을 대상으로 유사성 평정을 위한 분류를 하도록 하였다.

셋째, 분류된 진술문들이 타당한 코드인지 확인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초등학생 225명, 중학생 224명, 고등학생 203명, 대학생 210명, 일반인 229명 등 총 1,091명을 대상으로 연령

별, 성별에 따른 정직 개념의 중요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정직의 개념 인식을 살펴 보기 위해 최윤정과 김계현(2007)이 Kane과 Trochim (2006)을 재구성한 개념도 과정 절차 그림 1을 활용하였다.

아이디어 산출단계에서는 정직개념 인식을 탐색하기 위하여 참여자 55명의 사고기록 결과로 진술문을 정리하였다. 질문에 대해 5개 이상의 응답을 요구하였는데, 평균 4개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이론적으로 아이디어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Trochim(1989)은 대략 80~100개 정도의 핵심 문장들이 적당하다고 하였고, 최근 연구들(최윤정, 김계현, 2007; 최한나, 김창대, 2008)은 약 50~60개 정도의 문장 수가 적당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의 기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진술문을 분석하여 종합·편집하였다. 연구자와 평정자는 생성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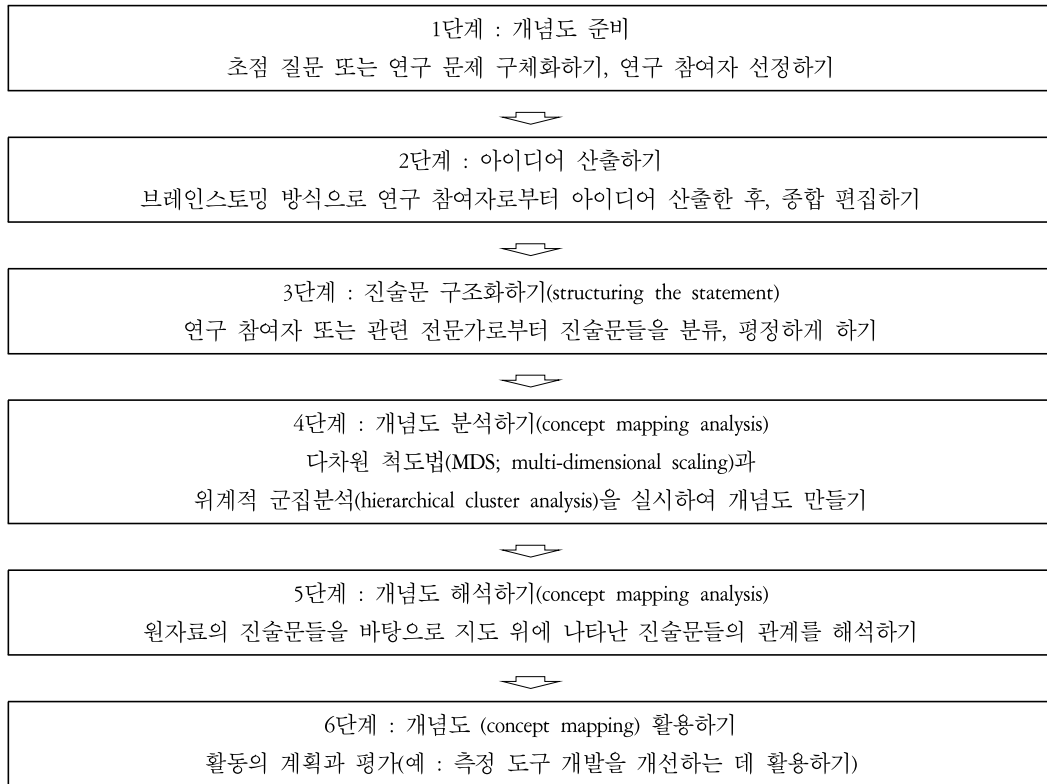


그림 1. 개념도 분석과정(Kane과 Trochim, 2006; 최운정 외 (2007) 재구성)

진술문 내용을 명료화하여 진술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여 개념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명료하게 재진술한 후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진술문들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구자와 교육학 전공 박사 1인이 카드 분류작업을 실시하여 동일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진술문을 통합하여 최종 분류에 사용될 64개의 진술문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은 진술문(statements)을 구조화하는 단계이다. 카드 분류 과정은 비구조화 된 방식으로서 64개의 진술문을 각자의 인식에 비추어 유사해 보이는 것끼리 모으는 것이다. 분류 시 제약은 하나의 진술문을 하나의 파일로

분류할 수 없는 조건과 64개 진술문 전부를 하나의 파일로 분류할 수 없는 조건만을 부과하였다(Paulson & Worth, 2002). 개념도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정직’ 개념 특성의 범주명을 확정하는 과정은 Weston 등(2001)의 변증법적 과정과 유사하다. 먼저, ‘정직’의 심성 요인(예, 감수성, 규범성, 의연성, 개방성)에 대한 논의(정범모, 2002)를 비롯하여 ‘정의로운 귀감자(just exemplar)’ (Walker & Henning, 2004)와 ‘정직한 사람’의 개념인식에 대한 요인분석(장희선, 손경원, 2011)에서 제시된 정직의 개념을 기초로 제작한 코딩체계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념도 분석으로 분류된 5가지

정직 범주는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진술문들에 대한 특성을 비교·통합하여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로 재명명하였다.

끝으로 개념도(concept mapping) 분석 단계이

다. 개념도 작성을 위하여 SPSS(PAWS 18)를 사용하여 다차원척도법(MDS: multidimensional scaling)과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보다 빈번

표 2. '정직' 개념 유사성 평정 진술문 목록

범주	코딩기준	유사성 진술문	진술문
원칙 주의	개인 내적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바른 마음가짐	양심적인	속이 깊음, 평온한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바름
		신뢰	믿을 만한, 소신이 있는
		이성적인	이성적인, 흔들리지 않음
		고지식한	손해보는 성격, 우직함, 융통성이 없음, 고지식한, 어울리기 어려운
진실성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려는 특성	거짓말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진실 말하기	거짓없이 사실 추구하기,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 하기, 진실을 말하기, 솔직하기, 알미워 보임
		속이지 않기	숨기지 않기, 속이지 않기, 꾸밈이 없는, 겉과 속이 같은, 언행일치
정의성	옳고 의로운 일을 추구하려는 행동특성	용기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주변의 비난을 받을 확률 높음, 의지가 끈음, 신념지키기, 대범함,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공정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기, 자신의 잘못 인정하기, 나와 남을 같게 생각하기, 공정하기
		정의로운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의로운 일 행하기, 정의를 실현하기, 옳은 일 하기, 올바른 것을 추구하기,
충실성	꾸준하고 성실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	성실	성실한, 바른 가치관 지니기, 바른 생활, 자신과 남에게 떳떳하기
		책임	양심의 가책을 느낌, 억지 부리지 않기, 책임지기
		일관성	일관적인, 객관적으로 행동하기, 사리분별하기, 물질 앞에서 의연하기
준법성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규칙이나 규범과 같이 지켜야 할 일을 준수하려는 행동특성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기	피해주지 않기, 나쁜 일 하지 않기, 노력 이상의 몫을 탐내지 않기
		법과 질서 규칙준수	편법하지 않기, 부정행위 하지 않기, 법질서 준수, 부끄러움 없기, 스스로 규칙 지킴, 규율에 맞는, 예외없는
		배려하는	배려하는, 타의 모범, 법없이 살 수 있음,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과장되지 않기

하게 같은 것으로 묶인 진술문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Kane & Trochim, 2006). 분류 자료를 대상으로 같은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들은 0, 다른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들은 1로 코딩한 총 64개의 유사성 행렬(GSM: group similarity matrix) 64×64로 전환한 후, SPSS (PAWS 18)를 이용하여 다차원 척도법 중 AISCAL(Takane, Young, & de Leeuw, 1977)방법으로 개인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적인 진술문들을 좌표 위에 점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Bedi, 2006). 다차원 척도법으로 분석하여 산출된 x, y 좌표 값을 위계적 군집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평정자들의 결과가 어떤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평정자들의 64×64 매트릭스를 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HCA)중 Ward법을 실시하였다. 우선 ‘정직’의 유사성 진술문을 찾아내 특성을 유형화하여 정직개념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면서 최적의 군집을 탐색하였다. 추가로 군집 간 진술문과 군집 내 진술문들을 검토하여 군집의 개념적 명료성과 군집들 간의 차이를 박사과정 이상 전문가 3인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차원 척도법 분석결과 산출된 좌표 값으로 군집분석을 하여 지도 위에 있는 진술문들을 내적으로 일관된 그룹으로 분할하여 개념도를 그렸다. 이를 통해 얻어진 개념도는 아이디어간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각 개념 구성들 간의 관계와 각 주제 및 이슈에 따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해준다(박상희, 홍성두, 2008). 다음 단계는 연구결과와 논의에 해

당되므로 연구 결과 및 논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념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된 ‘정직’의 개념 진술문 64개에 대해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연령집단들의 중요도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중요도 측정을 위한 개념 진술문의 수가 너무 많고 중첩 되거나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진술문들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자 및 교육학과 박사과 구성된 전문가 협의를 통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진술문을 유사성 평정 개념 코딩체계로 목록화하여 통합하였다(표 2). 최종으로 구성된 진술문의 중요도 인식에 대해 5점 리커트 평정지를 개발하였다. 개념도 분석 결과와 진술문 유사성 평정 결과를 거쳐 재구성된 16개의 ‘정직’ 유사성 개념 진술문이 ‘정직’ 개념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지 5점(1점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5점 = 매우 중요함) 리커트 평정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정직 인식 개념도 분석

정리된 64개의 진술문에 대한 비유사성 평정 자료를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원에서 $.31(R^2 = .65)$, 3차원에서 $.20(R^2 = .78)$, 4차원에서 $.16(R^2 = .86)$ 로 나타났다. 차원별 합치도와 설명량의 증가를 살펴보면,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변할 때 설명량이 크게 증가(+.32)하고, 나머지 차원으로 변할 때는 설명량의 변화가 미미하였다. 즉,

2차원의 합치도(stree)값이 .31, 설명량은 .65를 보여 매우 적합한 평균범위(.21~.37; Kane & Trochim, 2006; 최한나, 김창대, 2008에서 재인용)를 충족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치도(stree)와 설명량(R^2) 분석결과, 개념도를 그리기에 적합한 2차원으로 차원 수를 결정하였으며, .65의 중간 이상 수용할 만한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Joseph, Kruscal, & Myron, 1978; 여운승, 2000에서 재인용).

또한, ‘정직’의 유사성 진술문을 찾아내 특성을 유형화하여 정직을 개념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계적 군집분석(Ward)실시하면서 최적의 군집을 탐색하였다. 군집의 수는 군집화 일정표, 덴드로그램의 결과와 군집화 일정표에서 분류된 군집의 내용들을 토대

로 자극의 수를 고려하였다. 그 결과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변화될 때 결합 계수의 퍼센트 변화의 안정성을 참고하여(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86) 덴드로그램에서 10미만의 거리 값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 군집에 포함된 진술문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하여 하나의 코드로 개발하였고, 다차원 분석결과 산출된 좌표 값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진술문들을 지도 위에 내적으로 일관된 5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5개의 군집의 명명은 좌표 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상대적 위치, 범주에 묶인 진술문 내용과 연구 참여자들이 카드 분류 단계에서 기술한 범주명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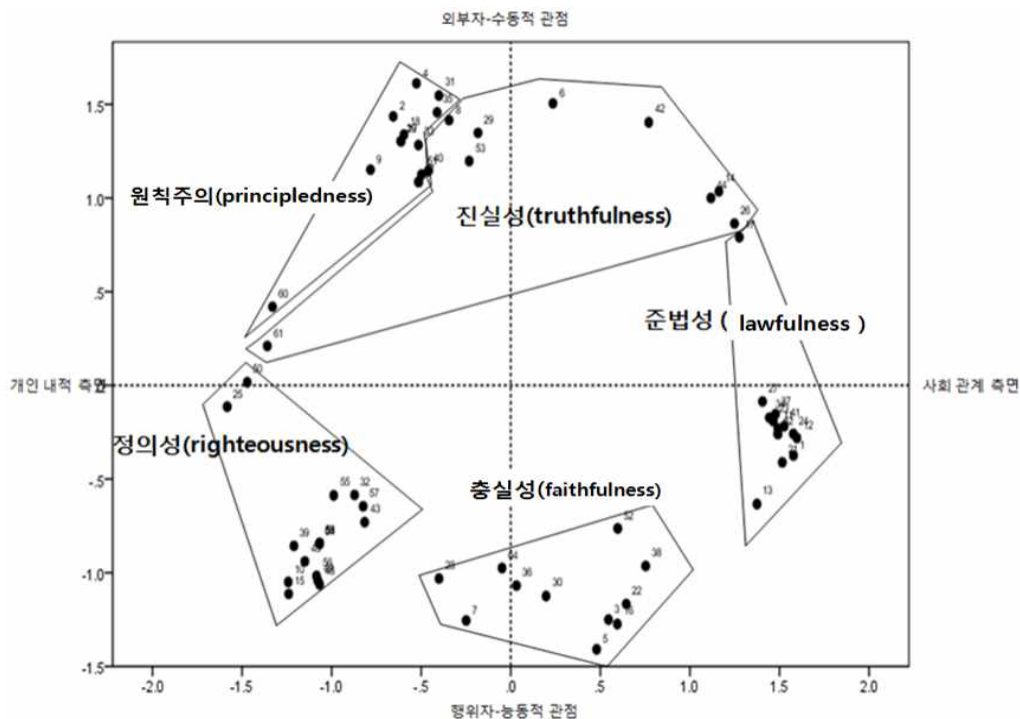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인의 ‘정직’ 인식의 개념도

용어를 참고하여 박사과정 학생 2인과 박사 1인 및 연구자의 전문가 논의과정을 거쳐 5개의 범주명을 확정하였다. 군집 간 진술문과 군집 내 진술문들을 검토하여 군집의 개념적 명료성과 군집들 간의 차이를 전문가 3인의 합의를 통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차원 분석결과 산출된 좌표 값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지도 위에 진술문들을 내적으로 일관된 집단으로 분할하여 그림 2와 같이 정직 개념을 5개의 범주로 이루어진 개념도로 나타냈다.

개념도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좌표 값을 기초로 한국인이 인식하는 ‘정직’의 개념은 ‘진실성(truthfulness)’, ‘준법성(lawfulness)’, ‘충실성(faithfulness)’, ‘정의성(righteousness)’, ‘원칙주의(principledness)’의 5개 범주로 구성되었다. ‘원칙주의’와 ‘진실성’, ‘정의성’이 각각 서로 가까운 거리로 묶여있고, ‘준법성’과 ‘진실성’이 상대적으로 가까이 묶여있고, 이들은 ‘충실성’과는 다소 동떨어진 위치로 묶여있다. 또한 ‘진실성’ 항목은 하나로 묶여있기는 하나 분산되어 있다.

둘째, 개념도 상에 나타난 진술문과 범주의 위치 및 거리 등을 분석한 결과, 정직한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의 구조는 1차원(x축)과 2차원(y축)의 두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1차원(x축)은 사회-관계적 차원(수직선의 오른쪽) 및 개인-내적 차원(수직선의 왼쪽)을 의미한다. 사회-관계적 차원은 사회 속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한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행위나 특성을 의미하며, 개인-내적 차원은 개인의 삶 속에서 정직한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내적인 행위나 특성을 의미한다. 사회-관계적 차원

에 나타나는 범주는 ‘준법성’이 해당되고, 개인-내적 차원에 나타나는 범주는 ‘원칙주의’와 ‘정의성’이며, ‘진실성’과 ‘충실성’은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원(y축)은 외부자-수동적 관점(수직선의 위쪽) 및 행위자-능동적 관점(수직선의 아래쪽)을 의미한다. 외부자-수동적 관점은 외부자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바라 본 ‘정직한 사람’에 대한 행위나 특성을 의미하고, 행위자-능동적 관점은 정직을 실천하고자 하는 능동적 행위자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정직한 사람의 특성을 의미한다. 외부자-수동적 관점에 나타나는 범주는 ‘원칙주의’, ‘진실성’이고, 행위자-능동적 관점에 나타나는 범주는 ‘충실성’, ‘정의성’이다. ‘준법성’은 대체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나 다소 아래쪽에 치우치며 행위자의 능동적인 행위의 관점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직 개념의 사고기술 결과, 수집된 자료는 64개의 진술문으로 분류되었으나, 진술문의 수가 너무 많고 중복 되는 것들이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와 교육학 박사 1인, 박사 수료생 2인의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진술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범주별 명확한 개념 진술 항목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총 64개 개념진술 중에서 의미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5개의 진술은 삭제하였으며, 3개의 진술은 그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도록 다른 진술로 수정하였고, 36개 진술은 명확하게 개념화된 다른 개념 진술에 반영하여 통합하였다. 전문가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직개념 진술문들의 의미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범주의 내용에 적합한 의미

표 3. 정직 개념 중요도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순위	평정 진술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전체	<i>F</i>	사후검증 (Schéffe)
			225	224	203	210	229	1091		
1	양심적인	<i>M</i>	3.93	4.23	4.23	4.33	4.40	4.22	9.14**	1< 2=3=4=5
		<i>SD</i>	1.05	.85	.89	.76	.81	.89		
2	거짓말 않기	<i>M</i>	3.99	3.94	4.06	4.30	4.20	4.10	4.29*	2<4
		<i>SD</i>	1.14	1.12	1.06	.93	.92	1.04		
3	신뢰	<i>M</i>	3.93	3.89	4.18	4.11	4.30	4.08	3.65*	2<5
		<i>SD</i>	1.03	1.02	2.33	.93	.88	1.34		
4	속이지 않기	<i>M</i>	3.92	3.93	3.93	4.26	4.21	4.05	5.90*	1=2=3<4
		<i>SD</i>	1.11	1.07	1.04	.91	.88	1.02		
5	진실 말하기	<i>M</i>	3.79	3.73	3.82	3.94	4.13	3.89	4.68*	1=2=3=4<5
		<i>SD</i>	1.15	1.14	1.14	1.03	.919	1.08		
6	법질서 준수	<i>M</i>	3.81	3.83	3.81	3.88	4.04	3.88	2.02	-
		<i>SD</i>	1.00	1.11	.98	1.02	.96	1.01		
7	정의로운	<i>M</i>	3.46	3.70	3.75	3.72	3.92	3.71	5.69*	1<5
		<i>SD</i>	1.02	1.07	1.06	1.04	.99	1.05		
8	일관성	<i>M</i>	3.41	3.77	3.45	3.88	3.88	3.68	10.89**	1=3< 2=4=5
		<i>SD</i>	1.11	1.03	1.03	.97	1.04	1.06		
9	공정	<i>M</i>	3.81	3.79	3.28	3.46	3.67	3.61	9.89**	1=2=5> 3=4
		<i>SD</i>	1.02	1.06	1.02	1.04	1.03	1.05		
10	책임	<i>M</i>	3.77	3.69	3.37	3.46	3.67	3.60	5.19**	1>3=4
		<i>SD</i>	1.10	1.03	1.10	1.00	1.15	1.09		
11	성실	<i>M</i>	3.76	3.52	3.06	2.94	3.38	3.34	20.55***	1>2>5>3>4
		<i>SD</i>	1.12	1.05	1.06	1.07	1.07	1.11		
12	배려	<i>M</i>	3.82	3.67	2.97	2.76	3.32	3.32	34.46***	1=2>5> 3=4
		<i>SD</i>	1.03	1.10	1.12	1.08	1.19	1.17		
13	피해 안 주기	<i>M</i>	3.56	3.55	2.93	2.93	3.41	3.28	16.19***	1>5>3=4
		<i>SD</i>	1.12	1.16	1.14	1.09	1.21	1.18		
14	용기	<i>M</i>	3.22	3.33	2.95	3.01	3.31	3.17	5.62*	2>5>1>
		<i>SD</i>	1.08	.97	1.01	1.09	1.11	1.06		
15	합리성	<i>M</i>	3.31	3.51	2.76	2.79	3.27	3.13	20.29***	1>3=4
		<i>SD</i>	1.04	1.12	1.05	1.08	1.06	1.11		
16	고지식한	<i>M</i>	2.61	2.79	2.31	2.62	2.80	2.63	6.37*	2=5>3
		<i>SD</i>	1.17	1.22	1.02	1.10	1.13	1.14		

주. 1=초등학생, 2=중학생, 3=고등학생, 4=대학생, 5=일반인.

* $p < .05$. ** $p < .01$. *** $p < .001$.

가 드러날 수 있도록 5개 범주별로 16개의 진술문으로 통합 정리하였다.

유사성 평정 결과, ‘원칙주의’에 해당하는 유사성 진술문은 ‘양심적인’, ‘신뢰’, ‘합리적인’, ‘고지식한’의 4개 항목으로 통합 분류되었다. ‘진실성’에 해당하는 유사성 진술문은 ‘거짓말하지 않기’, ‘진실만 말하기’, ‘속이지 않기’의 3개 항목으로 통합 분류되었다. ‘정의성’에 해당하는 유사성 진술문은 ‘용기’, ‘공평’, ‘정의로운’ 등 3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충실성’에 해당하는 유사성 진술문은 ‘성실’, ‘책임’, ‘일관성’ 등 3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준법성’에 해당하는 유사성 진술문은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기’, ‘법과 질서 규칙준수’, ‘배려하는’ 등의 3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표 3과 같이 총 5범주 16개 항목의 정직 개념진술로 통합·분류되었다.

2. 정직 개념의 하위요소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연령에 따른 정직 개념의 하위요소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6개 정직 개념의 평정 항목별로 중요도 인식에 대한 연령집단별 일변량(univariate) 분석 결과,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F 값이 모두 1.96보다 크므로 ‘법질서 준수’ 항목을 제외하고 각 집단에서 인식하고 있는 정직 개념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 .05$).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각 개념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법질서 준수’ 항목에서는 연령별 차이 없이 모두 비슷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실’과 ‘배려’의 진술문에 있어서는 초등학

생과 중학생이 비슷하게 대학생과 일반인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별 차이를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다. 연령 집단별로 각 정직 개념 16개 하위 평정질문별로 중요도에서 차이가 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Shéffe 사후검증결과와 같이 연령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정직 개념 인식에 있어 상위 범주에 따라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5개의 범주별 중요도의 평균값과 순위를 표 4와 같이 비교해보았다.

순위 분석결과, 집단별로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 평균값은 각각의 범주에서 3.5점 이상의 값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모든 집단에서 ‘진실성’이 평균 4.1점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정직 개념 가운데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직 개념은 고등학생부터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원칙주의’를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령이 낮은 초등학생, 중학생 집단은 가장 덜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은 ‘준법성’을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겼으나,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중요도가 매우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정직 개념의 하위요소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정직 개념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변량 분석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만

표 4. '정직' 개념의 하위 범주에 대한 연령별 중요도 평균과 순위

범주	평정 진술문	중요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원칙 주의	양심적인	3.93		4.23		4.23		4.33		4.4	
	신뢰	3.93		3.89		4.18		4.11		4.3	
	합리성	3.31	5	3.51	5	2.76	2	2.79	2	3.27	2
	고지식한	2.61		2.79		2.31		2.62		2.8	
	<i>M</i>	3.45		3.61		3.37		3.46		3.7	
진실성	거짓말 않기	3.99		3.94		4.06		4.3		4.2	
	속이지 않기	3.92	1	3.93	1	3.93	1	4.26	1	4.21	1
	진실 말하기	3.79		3.73		3.82		3.94		4.13	
	<i>M</i>	3.9		3.87		3.94		4.17		4.18	
정의성	용기	3.22		3.33		2.95		3.01		3.31	
	공정	3.81	4	3.79	4	3.28	3	3.46	4	3.67	4
	정의로운	3.46		3.7		3.75		3.72		3.92	
	<i>M</i>	3.5		3.61		3.33		3.4		3.6	
충실성	성실	3.76		3.52		3.06		2.94		3.38	
	책임	3.77	3	3.69	3	3.37	4	3.46	3	3.67	3
	일관성	3.41		3.77		3.45		3.88		3.88	
	<i>M</i>	3.65		3.66		3.3		3.43		3.64	
준법성	피해 안 주기	3.56		3.55		2.93		2.93		3.41	
	법질서 준수	3.81	2	3.83	2	3.81	5	3.88	5	4.04	5
	배려	3.82		3.67		2.97		2.76		3.32	
	<i>M</i>	3.73		3.68		3.24		3.19		3.59	

죽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Box' *M*검정에서, Box' *M*값이 2670.95, *F*값이 2.05(1224)으로 공분산 행렬이 .000($p < .05$)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큰 집단과 작은 집단의 사례수 비율이 0.79(96/123)이므로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지 않

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 분석을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박현정, 2005).

정직 개념 인식에서 성별 차이와 연령집단에 대한 주 효과 및 상호작용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다변량 검증

표 5. '정직'의 성별 × 연령별 간 다변량 검증

효과		값	<i>F</i>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성별	Wilks의 람다	.95	3.20	16.00	1029.00	<.001	.05
집단		.69	6.29	64.00	4030.63	<.001	.09
성별×집단		.91	1.54	64.00	4030.63	.004	.02

(MANOVA)의 결과는 표 5와 같이 성별, 연령 집단별 주 효과와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성별, 연령집단별로 16개의 정직 개념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성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효과는 람다값이 .91, *F*값이 1.54, 유의확률이 .004($p <$

.01) 이므로 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 개념 인식의 성별 차이를 일변량(univariate) 분석하여 표 6과 같이 정직 개념에 대한 연령 집단과 성별 중요도 결과로 나타났다. 표 6의 일변량 검증결과, 정직 개념 인식

표 6. 정직 개념 중요도의 연령 집단 간 성별 차이 검증-기술통계와 일변량 검증

집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전체		F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N			108	113	102	101	97	102	96	110	122	106	540	545	3.20	
양심		M	3.91	3.96	4.24	4.23	4.15	4.30	4.21	4.44	4.37	4.43	4.19	4.28		
적인		SD	1.04	1.06	.89	.81	.92	.85	.87	.63	.80	.82	.91	.86		
원칙 주의	신뢰	M	3.88	3.97	3.83	3.94	4.00	4.35	3.97	4.23	4.26	4.35	4.00	4.16		4.48*
		SD	1.05	1.01	1.04	.99	.98	3.11	1.07	.77	.86	.89	1.01	1.59		
	합리성	M	3.36	3.27	3.72	3.31	2.81	2.71	2.80	2.77	3.28	3.25	3.21	3.07	4.30*	
		SD	1.03	1.04	1.11	1.1	1.04	1.06	1.18	.99	1.07	1.06	1.13	1.08		
	고지		M	2.69	2.53	2.97	2.61	2.44	2.19	2.49	2.73	2.76	2.84	2.67	2.57	1.60
식한		SD	1.20	1.13	1.29	1.13	1.02	1.01	1.11	1.09	1.09	1.17	1.16	1.13		
진실성	거짓말 않기	M	3.94	4.04	3.93	3.94	3.92	4.19	4.28	4.31	4.00	4.43	3.99	4.19	7.44**	
		SD	1.15	1.14	1.12	1.13	1.11	.91	.91	.95	.95	.83	1.08	1.01		
	진실 말하기	M	3.78	3.81	3.68	3.78	3.58	4.06	3.94	3.94	3.93	4.34	3.78	3.99	9.08**	
		SD	1.11	1.18	1.19	1.07	1.22	1.00	1.08	.99	1.02	.77	1.14	1.03		
	속이지 않기	M	3.82	4.01	3.87	3.99	3.76	4.10	4.19	4.32	4.07	4.39	3.94	4.17	12.62***	
		SD	1.15	1.06	1.12	1.03	1.13	.93	.96	.87	.92	.8	1.07	.95		

표 6. 정직 개념 중요도의 연령 집단 간 성별 차이 검증-기술통계와 일변량 검증 (계속)

집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전체		F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N		108	113	102	101	97	102	96	110	122	106	540	545	
정의성	용기	M	3.44	3.01	3.42	3.25	2.96	2.95	2.76	3.23	3.33	3.27	3.20	.53
		SD	1.06	1.07	.99	.95	.99	1.03	1.0	1.1	1.12	1.09	1.08	
	공정	M	3.90	3.72	3.89	3.68	3.33	3.23	3.31	3.59	3.70	3.62	3.64	1.15
		SD	1.02	1.02	1.01	1.1	1.04	1.01	1.13	.94	1.06	1.02	1.08	
	정의로운	M	3.42	3.50	3.80	3.59	3.87	3.65	3.60	3.83	3.95	3.90	3.72	.31
		SD	1.11	.93	1.03	1.11	1.04	1.08	1.13	.95	1.04	.95	1.09	
충실성	성실	M	3.94	3.59	3.77	3.27	3.26	2.86	2.77	3.09	3.39	3.36	3.44	8.63*
		SD	1.04	1.1	1.00	1.04	1.00	1.0	1.14	.99	1.07	1.08	1.12	
	책임	M	3.86	3.68	3.83	3.55	3.66	3.09	3.46	3.45	3.77	3.54	3.73	14.25***
		SD	1.13	1.07	1.05	.99	1.0	1.06	1.09	.93	1.14	1.16	1.1	
	일관성	M	3.50	3.32	3.85	3.68	3.51	3.39	3.91	3.86	3.91	3.85	3.75	3.26
		SD	1.19	1.03	1.02	1.03	1.03	1.03	.95	.99	1.03	1.03	1.06	
준법성	피해주지 않기	M	3.53	3.59	3.72	3.38	3.15	2.72	2.85	3.00	3.36	3.45	3.34	1.52
		SD	1.16	1.09	1.17	1.12	1.12	1.13	1.07	1.11	1.12	1.30	1.16	
	법질서 유지	M	3.81	3.80	3.95	3.71	3.90	3.74	3.78	3.97	3.92	4.17	3.89	.01
		SD	.99	1.02	1.16	1.05	.97	.97	1.07	.97	.96	.94	1.03	
	배려	M	3.91	3.73	3.75	3.59	3.15	2.79	2.65	2.86	3.34	3.25	3.37	2.83
		SD	1.04	1.02	1.09	1.11	1.09	1.13	1.09	1.06	1.23	1.13	1.19	

* $p < .05$. ** $p < .01$. *** $p < .001$.

에서는 대체로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실한’, ‘책임감 있는’, ‘신뢰할 수 있는’과 같은 ‘충실성’과 ‘거짓말하지 않기’, ‘진실 말하기’, ‘속이지 않기’의 ‘진실성’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정직 개념 인식에 있어서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대체로 ‘성실’, ‘책임’ 같은 ‘충실성’과 ‘합리성’ 항목을 더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여성들은 ‘신뢰’, ‘거짓말하지 않기’, ‘진실

말하기’, ‘속이지 않기’ 같은 ‘진실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정직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성별(2)과 연령 집단(5)의 상호작용 효과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이듯이 정직 개념의 하위 개념인 ‘고지식한’, ‘용기’, ‘성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항목에서 성과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집단에 따라 정직 개념 인식에서

표 7. '정직'의 하위 개념에 따른 성별 x 연령별 상호작용효과 검증

정직의 하위 개념 진술어		제III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i>F</i>	유의확률	
성별 × 집단	원칙 주의	양심적인	1.74	4	.44	.57	.688
		신뢰	3.08	4	.77	.43	.785
		이성적인	4.87	4	1.22	1.07	.372
		고지식한	12.44	4	3.11	2.45	.045
	진실성	거짓말 않기	7.02	4	1.76	1.65	.161
		진실 말하기	9.99	4	2.49	2.20	.067
		속이지 않기	2.26	4	.57	.56	.689
	정의성	용기	22.40	4	5.60	5.11	<.001
		공정	8.06	4	2.02	1.89	.111
		정의로운	7.41	4	1.85	1.72	.142
	충실성	성실	22.81	4	5.70	5.05	<.001
		책임	8.58	4	2.15	1.87	.114
		일관성	.78	4	.19	.18	.948
	준법성	피해 안 주기	15.21	4	3.80	2.92	.020
		법질서준수	8.99	4	2.25	2.20	.067
		배려	8.93	4	2.23	1.84	.120

성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항목의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지식한', '피해 안 주기' 항목에 대한 중요도는 남성들의 경우 중학생에서 높아진 것이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낮아지다가 일반인이 되면 다시 높아진다. 반면, 여성들은 고등학생에서만 낮아지다가 일반인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성별 연령집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용기', '성실' 등의 '충실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남성들은 초등학교 때 가장 높다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줄어들지만, 일반인에서 다시 높게 인식하는 경

향을 보인다. 여성들도 고등학생까지 계속 낮아지다가 대학생 집단에서부터 다시 높아지고 있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정직'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연령과 성에 따른 발달적 지형도를 그려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정직을 개념

도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초등학교부터 일반인에 이르는 연령과 성별 정직 개념 인식의 발달적 차이를 파악하였다.

정직 인식에 대한 개념도 분석결과, 첫째, 한국인이 인식하는 정직은 64개의 진술문으로 분류되었으며, ‘진실성, 준법성, 충실성, 정의성, 원칙주의’의 5개 군집으로 범주화되었다. 5개 범주는 개인-내적 차원 및 사회-관계 차원의 x축, 외부자-수동적 관점 및 행위자-능동적 관점을 y축으로 하는 정직 인식 개념도로 구성되었다. 5개 범주 중 x축의 개인-내적 차원에 해당되는 범주는 ‘원칙주의’와 ‘정의성’이다. 이것은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 성품 같이 개인적인 삶을 통해 나타나는 특성을 의미한다. 두 범주 모두 개인의 삶에 내면화된 자질인데 ‘원칙주의’는 외부자의 관점에서 정직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인식되는 수동적인 관점의 특성으로, ‘정의성’은 행위자가 주체적으로 정직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능동적 관점의 특성으로 분류되었다. x축의 사회-관계 차원에 해당되는 범주는 ‘준법성’으로 이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으로 생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능동적 행위 특성을 보인다. 한편, ‘진실성’과 ‘충실성’은 개인-내적 차원의 내적 신념과 사회-관계 차원의 공동체 의식을 동시에 갖추어야하는 특성으로 가운데에 위치한다. ‘진실성’은 외부자의 관점에서 정직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인식되는 수동적인 관점의 특성으로, ‘충실성’은 행위자의 관점에서 정직하기 위한 능동적인 행동특성을 의미하는 범주로 구분되었다.

둘째, 정직개념의 하위 진술문들에 대해 발

달적 중요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 집단에서 ‘진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직의 개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내적차원의 외부자-수동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특성인 ‘원칙주의’였으며,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사회-관계차원의 행위자-능동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특성인 ‘준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연령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성별차이에 있어서 남성은 ‘성실, 책임, 신뢰’와 같은 진술문이 포함된 ‘충실성’을, 여성은 ‘거짓말 하지 않기, 진실만 말하기, 속이지 않기’의 진술문이 포함된 ‘진실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인의 정직에 대한 인식의 개념도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진실성, 준법성, 충실성, 정의성, 원칙주의’의 5개 범주는 군집으로 범주화된 결과는 Walker와 Henning(2004)이 정의로운 귀감자(just exemplar)에 대한 인식을 위계적 회귀분석 및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특징적(particularity) 차원과 성격적(character) 차원을 축으로 구분하여 ‘이성적인’, ‘양심적인’, ‘정직함’, ‘원칙적인’, ‘공정’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사범대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직한 사람의 특성 인식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하여 ‘진실성’, ‘준법성’, ‘충실성’, ‘정의성’의 4요인으로 분류한 결과(장희선, 손경원, 2011)와도 유사하다. 각 군집들의 하위요소와 범주 명을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진실성’은 Walker와 Henning (2004)의 ‘정직함’과 장희선, 손경원(2011)의 ‘진실성’과 연결 지

을 수 있고, ‘준법성’은 ‘이성적인’, ‘준법성’과 관련지을 수 있다. 그리고 ‘충실성’은 ‘양심적인’, ‘충실성’과 같은 맥락이며, ‘정의성’은 ‘공정한’, ‘정의성’, ‘원칙주의’는 ‘원칙적인’과 연결 지을 수 있어 매우 유사한 구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직 개념 범주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연령별 정직 개념의 중요도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모든 연령 집단에서 ‘진실성’을 중요한 정직 개념으로 여기고 있어 한국인은 ‘사실대로 말하기, 속이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등의 진실성을 정직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정직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짓말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어 온 현실과도 일치한다(Jensen, 2004; Peskin, 1992; Talwar & Lee, 2002a, 2002b; Talwar, Lee, Bala, & Lindsay, 2002; Talwar, Murphy, & Lee, 2007). 따라서 앞으로 한국인의 정직연구도 ‘진실성’에 기반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거짓말하지 않기, 속이지 않기, 사실대로 말하기’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실증적인 정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셋째, 정직 개념의 인식에 있어서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준법성’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내면 차원에서 요구되는 ‘원칙주의’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등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릴수록 정직, 부정직 행동에 대해 처벌을 피하기 위한 Kohlberg의 1단계적 도덕 추론의 경향을 보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 내면에서 발현되는 정직에 대한 자기성찰적

의지가 반영된 ‘원칙주의’를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Kohlberg가 말하는 5단계 이상의 도덕 추론 경향을 보인다는 인지 발달적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Bussey (1992)가 지적인 대로 아동의 도덕 판단은 별에 의존하다가 인지적 성숙과 사회적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내적 평가 반응에 의존하게 된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사회 인지 이론(Bandura, 1986)에서 가정하는 자기-조절 발달과도 일치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인적 도덕성에 대해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사회적 거짓말을 준거로 하여 연령이 낮을 때는 구체적 개념을,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순한 추상적 개념에서 점차 복잡한 추상적 개념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Lamborn, Fischer, & Pipp, 1994).

넷째, 정직 개념의 인식은 남녀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성실, 신뢰, 책임’의 항목이 포함된 ‘충실성’을, 여성은 ‘거짓말하지 않기, 진실만 말하기, 속이지 않기’의 ‘진실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여성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남성들은 책임감이 없거나 성실 또는 충실하지 않은 것을 부정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의 도덕적 판단 수준과 행동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박영아, 2008; 신미양, 2003; 오유리, 2008; Talwar & Lee, 2002a)의 결과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정직 개념 인식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로 차해진 사회화 과정에 따라 정직의 개념 인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성별 정직 개념 인식의 차이는 여성이 조직의 집단 내 문화에서 다소 자유로운데 반해, 남성은 가정, 조직, 사회에서 책임과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정직 개념 인식차이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차이인지 여부는 향후 비교문화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직의 개념은 일상 생활에서 복잡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동자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직’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직성 연구에서는 실증적 연구에 한계가 있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령과 상관없이 ‘진실성’을 가장 중요한 정직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정직에 대한 연구가 ‘진실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직교육에서 ‘진실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앞으로 정직성 연구가 지금까지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정직’ 개념이 아닌 ‘진실성’에 초점을 맞춘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개념에 기반한 실증적 정직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실증적 정직성 연구를 통해 상호작용 영역에서 개인의 도덕적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문용린 등, 2007; Bussey, 1992; Fu et al., 2007; Perkins & Turiel, 2007). 넷째, 본 연구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정직의 개념

인식의 중요도에 차이가 나는 결과는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부정직 행동 및 정당성에 대한 연구(Perkins & Turiel, 2007)와 이것을 한국적 상황에서 재연구한 문용린과 동료들(2007)의 연구에서 딜레마 상황을 도덕, 개인, 인습 영역 중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도덕적 원칙의 적용이 달라진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정직의 개념으로서 진실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과 연령별 정직의 개념 인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직성을 증진시키는 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Goodman et al., 2006; Lyon & Saywitz, 1999; Talwar et al., 2007).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본 연구의 주제를 발전시키고 연구방법을 개선시킬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직의 개념이 유교적 가치 가운데 인(仁)의 개념에 ‘자애로운’, ‘어진’, ‘사람의 마음’ 등 정직을 비롯한 다양한 덕목이 이미 정직의 개념도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근대 사회의 시민이라는 역할이 요구하는 ‘정직’의 덕목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둘째, 사고기술방식을 통한 질적 및 양적 연구 자료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정직의 개념 범주구성에 있어 유교문화에 뿌리를 둔 한국인의 기질이나 가치관을 고려한 문화 특수적인 입장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다만, 참여자들의 응답을 근거로 일반화를 시도하였으나, 한국인의 내부적 특수성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더욱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여 보다 미

시적인 분석을 통해 정직 개념 인식 범주의 타당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직개념 인식은 한국사회라는 고유한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이 처해진 상황에 속해있는 환경, 대상, 조직과 같은 총체적인 구조 속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연구 대상을 한정하여 그 연구 대상이 속한 실생활 속에서 정직 개념의 하위 범주별 인식에 대한 실험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방식의 연구를 통해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개인 내·외적인 맥락 요인들이 정직 개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살펴본다면, 정직 개념 인식을 보다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직개념도를 활용하여 다른 문화권과의 비교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문화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재륜 (1996). 윤리와 언어분석,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국립국어원 (2012). 표준국어대사전. www.korean.go.kr
- 김경희 (1999). 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정직과 친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1), 14-24.
- 김지영 (2007). 네트워크 성과측정 기획을 위한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 적용가능성. 한국사회복지학, 59(3), 281-304.
- 김홍희, 한기순 (2011).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의 개념도. 영재와 영재교육, 10(1), 49-72.
-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7). 한국인의 거짓말 유형과 정당화 양식 연구. 인간발달연구, 15(3), 191-205.
- 문용린, 최인수, 곽윤정, 이현주 (2010).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정책연구 2009-019. 한국과학창의재단.
- 박영아 (2008). 아동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및 정서 반응의 발달. 한국생활과학회지, 17(6), 1079-1091.
- 박진희, 손원경 (2014). 개념도를 통한 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191-209.
- 박현정 (2005). 다변량 통계방법의 이해. 서울: 학연사
- 송명자 (1995). 정직성의 본질과 정직성 교육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21, 33-46.
- 송영민 (2009). 도덕적 개념 이해를 위한 '개념 분석법'의 적용 방안, 한국철학논집 제25집, 293-313.
- 신미양 (2003).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유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 성옥련 (1994). 긍정적 피드백이 아동의 정직행동 및 그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10-123.
- 여운승 (2000). 다변량행동조사. 서울: 민영사.
- 오유리 (2008). 연령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남희, 이은정 (2004). 초등학교 아동과 부모

- 의 거짓행동 경험 및 태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3), 95-115.
- 이선인 (1993).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유아의 부정적 행동. 사회과학연구, 6, 123-146.
- 이지혜 (2012). 도덕귀감자의 도덕역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철주 (2014). 실천지향의 인성 개념 탐구, 윤리교육연구, 제34집, 317-337.
- 장희선, 손경원 (2011). 예비교사들의 정직한 사람의 특성 인식 및 정직 정체성과의 관계 분석.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35, 237-165.
- 정범모 (2002). 2장. 정직해야 할 까닭. 이돈희, 권균 (편), 도덕성 회복과 교육.
- 정범모 (2004). 한국의 내일을 묻는다: 국력, 국격, 교육. 서울: 나남출판.
- 정창우, 손경원, 김남준, 신호재, 한혜민 (2013).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 최윤정, 김계현 (2007). 고학력 기혼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8(3), 1031-1045.
- 최한나, 김창대 (2008). 좋은 슈퍼비전 관계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1.
- 최현자 (1996). 한국의 안산시와 호주의 퍼스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의 취학 전 자녀의 훈육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용희 (2004). 한국 전통문화와 유아교육. 어린이교육, 6, 9-30.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Bedi, R. P. (2006). Concept-mapping the client's perspective on counseling alliance form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26-35.
- Burton, R. W. (1976). Honesty and dishonesty.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s* (pp. 173-197).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Bussey, K. (1992). Lying and truthfulness: Children's definitions, standards, evaluative reaction. *Child development*, 63, 129-137.
- Daughtry, D., & Kunkel, M. A. (1993). Experience of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A concept ma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316-323.
- Fu, G., Xu, F., Cameron, C. A., Heyman, G., & Lee, K. (2007).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children's choices, categorizations, and evaluations of truths and 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3, 278-293.
- Goodman, G. S., Myers, J. E. B., Qin, J., Quas, J. A., Castelli, P., Redlich, A. D., & Rogers, L. (2006). Hearsay versus children's testimony: Effects of truthful and deceptive statements on juror's decisions. *Law and Human Behavior*, 30, 363-401.
- Grinder, R. E. (1964). Relations between behavior and cognitive dimensions of conscienc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35, 881-891.
- Hair, J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86). *Multivariate data*

- analysis with readings. (4th edition 1995).*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 Jensen, L. A. (2004). Coding manual: Ethics of autonomy, community, and divinity (Revised). Available from www.LeneArnett Jensen.com.
- Kane, M., & Trochim, W. M. K. (2006).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Applied Social Research Methods Series, 50*.
- Keltner D. (2009). *Born to be good, Boston:* Norton.
- Kohlberg, L. (1958). *The development of modes of thinking and choice in years 10 to 16*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Lamborn, S., Fischer, K., & Pipp, W. (1994). Constructive criticism and social lies; A development sequence and understanding honesty and kindness in social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95-508.
- Lyon, T. D., & Saywitz, K. J. (1999). Young maltreated children's competence to take the oath.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3*, 16-27.
- Morgan, J. J. (1937). *The psychology of the unadjusted school child*.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Paulson, B. L., & Truscott, D.,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46*, 317-324.
- Paulson, B. L., & Worth, M. (2002). Counseling for suicide: Client perspectiv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86-93.
- Peskin, J. (1992). Ruse and representations: On children's ability to conceal inform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8*, 84-89.
- Perkins, S. A., & Turiel, E. (2007). To lie or not to lie: To whom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Child Development, 78*, 609-621.
- Piaget, J. (1932/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Takane, Y., Young, F. W., & de Leeuw, J. (1977). Nonmetric individual differences multidimensional scaling: An alternating least squares method with optional scaling features. *Psychometrika, 42*, 7-67.
- Talwar, V., & Lee, K. (2002a). Development of lying to conceal a transgression: Children's control of expressive behaviour during verbal de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 436-444.
- Talwar, V., & Lee, K. (2002b). Emergence of white lie-telling in children between 3 and 7 years of age. *Merrill-Palmer Quarterly, 48*, 160-181.
- Talwar, V., Lee, K., Bala, N., & Lindsay, R. C. L. (2002). Children's conceptual knowledge of lie-telling and its relation to their actual behaviors: Implications for court competence examination. *Law and Human Behavior, 26*, 395-415.
- Talwar, V., Murphy S., & Lee, K. (2007). White lie-telling in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 1-11.
- Trochim, W.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A Special Issue of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1), 1-16.

Walker, L. J., & Henning, K. H. (2004). Differing conceptions of moral exemplar: Just, brave, and ca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629-647.

Weston, J., Mukherjee, S., Chapelle, O., Pontil, M., Poggio, T., & Vapnik, V. (2001). *Feature selection for svm*. I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13.

1 차원고접수 : 2015. 04. 11.

수정원고접수 : 2015. 05. 14.

최종게재결정 : 2015. 06. 03.

A Study on the Koreans' Perception of 'Honesty' Using Concept Mapping Analysis

Chang, Heesu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Koreans conceptualize honesty and whether there are the difference about they think the sub-concept of honesty according to age, gender. Participants consisted of 1,091 people, ranging from primary school students to adults. A free-listing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ir perceptions of honesty, and the collected qualitative data was analyzed using a 'Concept Mapping' methodology. As a result, 5 categories were identifie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weight of honesty perception among different age groups. First, honesty as recognized by Koreans was classified into the five categories of 'truthfulness', 'lawfulness', 'faithfulness', 'righteousness', and 'principledness'. Second, all age groups valued 'truthfulness' the most. Third, particularly, the higher the age, the more the subjects tended to emphasize 'principledness'; the lower the age, the more they tended to stress 'lawfulness'. Forth, in terms of gender differences, males placed more importance on 'faithfulness' while females placed more importance on 'truthfulness'. This study makes up for the lack of empirical evidence in the existing Korean literature on honesty. It can also lead to a new direction of moral education by providing empirical resources on the analyzed perception of honesty.

Keywords: honesty, concept mapping, perception, Korean